

2012. 8.

충남의 관광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

선임연구위원
이 인 배

충남발전연구원

【 목 차 】

1. 국내외 관광정책 동향

- ① 해외관광 동향 3
- ② 국내관광 동향 4
- ③ 시사점 8

2. 충남 관광정책 진단과 과제

- ① 충남관광환경과 여건 분석 5
- ② 충남 관광정책 진단 6
- ③ 발전과제 8

3. 충남 관광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

- ① 관광정책 방향 7
- ② 관광정책 발전방안 8
- ③ 세부추진시책 8

4. 결론 및 정책건의

1.

국내외 관광정책 동향

1 관광환경의 변화전망과 시사점

①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 2013년 개관예정인 국립생태원 및 해양생물자원관의 대규모 관광객을 대비한 중·대규모 리조트 유치에 시급하나, 관광단지 기본인프라 구축 미흡, 수도권과의 원거리 등 입지조건 열세로 민자유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회적(Social) 변화로 트라이슈머(Trysumer), 트랜슈머(Transumer), 그린슈머(Greensumer) 등 새로운 소비층 등장과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관광, 여행, 패션 등에 50대 이상의 연령층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층의 의료관광,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
- 기술적(Technology) 변화로 소셜 인플루언스 마케팅 관심 증대로 온라인을 통한 방문목적지 선택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스마트폰 및 각종 모바일 서비스로 관광자원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며,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을 통한 신(新)관광정보서비스 제공 확대에 관광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경제적(Economical) 변화로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의 파스 아시아나(Pax Asiana)시대의 도래로 중국 경제는 고성장하여 소득 증가 및 서비스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중산층 인구의 증가와 다극화 진행으로 중국과 인도의 경우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 예측
- 환경적(Ecological) 변화로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에 대한 중요성 심화와 수용 요구 증대로 기후변화, 그린뉴딜, 안전, 건강 등이 국가 및 지역발전에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자연친화적인 코드 그린(Code Green), 에코이즘(Ecoism) 부상으로 미래도시,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접목되어 전산업적으로 나타남
- 정치적(Politics) 변화로 국가, 지역, 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협력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협력 관계가 동종 또는 이종산업간의 경쟁적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국경을 초월한 경쟁 가속으로 국가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에 그 이동이 증가

< 표 1 > 일반환경 변화 및 전망

구 분	변 화 및 전 망
사회적(Social)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라이슈머(Trysumer), 트랜슈머(Transumer), 그린슈머(Greensumer) 등 새로운 소비층 등장과 소비주체의 다각화 전망 -안구 고령화 가속화로 관광, 여행,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의 부문에 새로운 50대 이상의 연령층 비중이 증가 -여성층 등 라이프스타일 계층 부각으로 의료관광,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여성층 구매력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
기술적(Technology)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 네트워크 시대 전개와 소셜 인플루언스 마케팅 관심 증대로 온라인을 통한 방문목적지 선택 비중이 점차 증가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ICTs)을 통한 네트워크 지식사회 재형상화로 스마트폰 및 각종 모바일 서비스로 관광자원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을 통한 신(新)관광정보서비스 제공 확대로 관광정보 검색의 새로운 방향이 부상되어 관광산업에 다양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경제적(Economic)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의 파스 아시아나(Pax Asiana)시대의 도래로 중국 경제는 고성장하여 소득 증가 및 서비스산업 수요가 증가할 전망 -지식경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피플파워(people power)시대 대두로 브릭스(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경제 안에서 중산층 인구 증가 전망 -세계경제내 BRICs, N-11 등 신흥경제세력 등장 및 다극화 진행으로 중국과 인도의 경우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 예측
환경적(Ecological)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에 대한 중요성 심화와 수용 요구 증대로 기후변화, 그린뉴딜, 안전, 건강 등이 국가 및 지역발전에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 -차세대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에 대한 개발 확산으로 풍력, 태양광 등은 에너지 생산이외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겸목적으로 추진 -자연친화적인 코드 그린(Code Green), 에코이즘(Ecoism) 부상으로 미래도시,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서 접목되어 전산업적으로 나타남
정치적(Politics)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지역, 도시간의 교류를 통한 협력의 관계를 증시하고 있으며, 협력 관계가 동종 또는 이종산업간의 경쟁적 클러스터로 조성 -국제간 이동 증가로 정부역할의 변화와 국경을 초월한 경쟁 가속으로 국가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에 그 이동이 증가

②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 세계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으로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관광산업 중요성이 대두되고,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 지속과 중국시장의 급부상으로 한·중·일·홍콩의 4개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관광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로 국민 국내관광수요의 지속적 성장 추세가 예상되고, 녹색관광의 중요성 대두와 관광행태 패러다임 변화로 Free-Plan SIT(Special Interest Tourism) 증가와 고부가가치 관광분야인 의료관광, MICE관광, 크루즈 관광, 생태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연계한 복·융합 상품 개발 본격화로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STAR형 여가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

< 표 2 > 관광환경 변화 및 전망

구 분	변 화 및 전 망
세계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관광산업 중요성 대두로 관광산업은 석유, 자동차산업 등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성장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 지속과 중국시장의 급부상으로 한·중·일·홍콩의 4개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중국 관광시장의 동북아 관광시장 성장 리드로 중국은 연평균 7.8%의 성장을 통해 세계 5대 관광시장으로 부상 -녹색관광의 중요성 대두와 관광행태 패러다임 변화로 Free-Plan SIT(Special Interest Tourism) 증가와 관광행태의 변형이 확산전망
한국 관광환경 변화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로 국민 국내관광수요의 지속적 성장 추세가 예상되고, 국민 국내관광 참여 횟수와 1인당 관광비용 증가 -외래관광객 증가로 2020년 까지 연간 4.05%의 성장률로 1,076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순수 관광목적의 방문과 지출비용 등의 지속적 증가로 쇼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식도락관광도 증가함 -관광시장 공급의 확대 추진으로 국가관광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 추진 -고부가가치 관광분야인 의료관광, MICE관광, 크루즈 관광, 생태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 -관광산업과 연계한 복·융합 상품 개발 본격화로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STAR형 여가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 * STAR형 여가란 자기개발(Self-development), 외모변신(Transformation), 나홀로 여행(Alone), 방콕족(Rest-at-Home)의 형태를 지칭 -저탄소 녹색성장이 관광산업 전 부문에 적용 확산으로 정부는 관광지, 관광단지,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광역권 관광개발 등 5개 사업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③ 충청남도에 주는 시사점

- 인구 고령화에 의한 관광, 여행 등에 50대 이상의 연령층 대상과 여성층의 의료 관광,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여행상품의 개발이 필요
- 관광정보제공과 홍보는 스마트폰 및 각종 모바일 서비스와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 현실을 통한 신(新)관광정보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중국·일본·한국을 중심의 팩스 아시아나(Pax Asiana)시대에 적합한 인바운드 여행패키지와 중산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의 발굴 육성이 필요
- 기후변화, 그린뉴딜, 안전, 건강 등이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충남의 미래도시, 관광, 문화 등의 분야에 접목하는 노력 요구
- 동북아 관광시장의 성장 지속과 중국시장의 급부상으로 한·중·일·홍콩의 4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관광객 유치 필요
- 녹색관광의 중요성 대두로 녹색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Free-Plan SIT(Special Interest Tourism) 증가에 대응한 관광자원과 상품 개발 추진
- 더불어 고부가가치 관광분야인 의료관광, MICE관광, 크루즈 관광, 생태관광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과 복·융합 상품 개발 뿐만 아니라 STAR형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제공이 필요함

② 충남 지역개발 여건분석과 시사점

① 지역개발 여건분석

- 인구지표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충남의 인구는 연평균 0.69% 증가하였고, 도시화율도 2010년 기준 67.1%로 2005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이는 과거 대전 또는 수도권지역으로 유출되었던 충남의 인구가 최근 들어 천안·아산지역과 세종시 인근지역으로 꾸준히 유입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에 기인함
- 지역경제지표로 지역내 총생산은 1998년 17조1,400억 원에서 2010년 기준 55조 1,660억 원으로 3.2배 증가하였음. 산업구조는 1차산업의 비중(생산액 기준)이 1998년 14.4%에서 2010년 9.0%로 크게 낮아진 반면, 2·3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음. 이는 농·림·어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함

- 기반환경지표로 도로부문은 고속도로의 연장이 1998년 78.5km에서 2010년 459km 로 약 5.8배 증가하였고, 국도의 연장은 1998년 1,191km에서 2010년 1,375km로 확충되어 약 12% 증가하였으며, 도로 포장률도 71.1%에서 72.8%로 신장되었음. 이와 같은 국도 및 지방도의 확충으로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간의 교통연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함
- 생활환경지표는 생활환경부문에 있어도 상수도 보급률은 1998년 49.0%에서 2010년 89.0%로 크게 향상되었음. 주택보급률은 2010년 현재 98.7%에 달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됨

< 표 3 > 지역현황분석의 종합

구 분	현 황 분 석 의 종 합
입지 및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중심, 전국 교통망의 결절지로서 삼남의 관문 - 다양한 자연환경으로 평야와 구릉지가 전체면적의 60% 이상을 차지 - 리아스식 해안선과 전국 3위의 섬 보유, 금강은 국내 3대 하천
인문환경 및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년층 인구구성과 노령화가 증가되고, 시군간 인구분포 차이가 많고, 천안시·아산시에 인구가 집중 - 농업적 토지이용이 82.3%로, 전국과 4통 8달의 교통망 체계 갇춤 - 전국 제일의 지역총생산과 2차 산업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3차산업이 전국 평균 이하의 산업구조로 변화

② 시사점

- 입지 및 자연환경에서는 국토의 중심, 전국 교통망의 결절지로서 영·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 다양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계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전국대상의 국외관광객 유치 필요
- 인문환경 및 공간구조에서는 장년층과 노령화에 대비한 관광자원개발과 농업적 토지이용을 고려한 녹색체험관광을 육성 및 4통 8달의 교통망 체계를 통한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을 추진해야 함
- 충남은 2차 산업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3차산업이 전국 평균 이하의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1차산업을 통한 1.5차 산업과 관광서비스 산업의 적극 육성이 필요
- 충청남도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통적 1차 산업(농림, 어업)의 약화로 2·3차 산업의 비중이 점증되고 있는바 향후에도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 도로, 교통망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 등은 지역주민의 의식구조 및 지역생활구조의 변화가 예상됨

2.

충남 관광정책 진단과 과제

1 관광현황분석과 시사점

① 관광현황 분석

■ 관광자원

- 다채로운 관광자원으로 천혜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관광자원을 제공
 - 자연공원(6개소), 자연휴양림(11개소), 산림욕장(10개소), 수목원 및 식물원(14개소), 온천(10개소), 해수욕장(39개소), 골프장(11개소)
- 충남 관광소권역별 자연관광자원은 주로 해양관광권에 집중 분포하여 편중된 경향을 보임
 - 자연공원은 백제금강문화관광권에 집중되어있고,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은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온천은 역사온천휴양권과 백제금강문화관광권에 집중되어 있고 해수욕장은 해양관광권에 집중됨
- 풍부한 인문관광자원으로 문화재(924개)를 보유하여 공주·부여에 집중 분포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공주고도, 무령왕릉역사지구(15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며, 농·어촌체험마을(71개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지원함
- 충남관광소권역별 인문관광자원은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금강문화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음
 - 문화재는 백제금강문화관광권에 가장 많으며 내포문화관광권과 역사온천휴양권 순서임

■ 관광개발과 관광기반시설

- 여행기반을 위한 관광개발현황으로 관광지는 지정된 관광지(25개소) 조성축진이 필요하고, 관광특구(2개소)는 기능활성화가 요구됨
- 관광시설들은 부문별 확충이 필요한데 관광숙박시설(28개소)은 업체에 따라 수요자별 확충이 요구됨
- 관광객이용시설(3개소)은 천안·아산에 집중되며, 관광관련시설인 여행업(388개소), 유원시설업(11개소), 관광편의시설업(42개소) 등은 활성화가 요망됨
- 관광안내소(9개소)는 입지 개선 및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고, 관광안내표지판(13개소)도 입지 확충 및 정비가 요구됨.

- 문화기반시설(117개소)은 양호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박물관(37개), 미술관(5개), 문예회관(12개) 등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관광자원화가 요구됨

■ 관광상품 및 관광인력

- 차별화 되어가는 관광상품으로 지역축제는 도지원축제 평가및 통합축제 개최 등 다각적 축제개선제도 추진과 2008년에 7개 문화관광축제가 지정되어 지역파급효과를 제고
- 농·특산물로는 인삼과 모시 등 특성있는 특산물과 향토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를 보유하고 있어 관광상품으로 대중화가 필요함
- 관광인력은 관광해설사(총166명)가 활동하며, 전문성 제고에 노력 중이나 활동영역과 활동대상자별 확충이 필요함
- 충남소권역별 관광개발은 편중된 관광개발과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대도시근교권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관광특구는 역사온천휴양권의 아산온천관광특구와 해양관광권의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 2곳이 지정되어 있음
 - 관광숙박시설과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관련시설 등 온천이 발달한 역사온천휴양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관광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고 관광지가 없는 대도시근교권에는 관광시설이 열악한 상태임. 관광객은 해수욕장이 발달되어 있는 해양관광권이 가장 많고 대도시근교권이 가장 적음

■ 관광시장 분석

- 충청남도 2009년도 내·외국관광객수는 9,000여만명인데, 2007년 서해안유류유출사고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다 관광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특성은 하절기를 중심으로 보령과 태안 등 해양관광권에 편중되게 방문하여 계절적 집중을 분산해야 함

< 표 4 > 관광현황분석의 종합

구 분	현 황 분 석 의 종 합
관광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혜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관광자원을 제공하고, 주로 해양관광권에 집중 분포하여 편중된 경향을 보임 -공주·부여에 집중 분포하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인문관광자원은 백제금강문화권에 집중 분포
관광개발과 관광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지는 지정된 관광지는 조성축진이 필요, 관광특구는 기능활성화 요구 -관광시설들은 부문별 확충이 필요한데 관광숙박시설은 업체에 따라 수요자별 확충 요구 -관광객이용시설과 관광관련시설인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은 활성화 요망 -관광안내소는 입지 개선 및 기능 활성화, 관광안내표지판도 입지 확충 및 정비가 요구 -문화기반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관광자원화 요구
관광상품 및 관광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축제는 도지원축제 평가 및 통합축제 개최 등 다각적 축제개선제도 추진과 2008년에 7개 문화관광축제가 지정되어 지역파급효과 제고 -인삼과 모시 등 특성있는 특산물과 향토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의 관광 상품으로 대중화 필요 -관광해설사 총166명이 활동하며, 전문성 제고에 노력 중이나 활동영역과 활동대상자별 확충 필요 -충남소권역별 관광개발은 편중된 관광개발과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대도시근교권에 관광지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이 특징
관광시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도 충남 내·외국관광객수는 9,000여 만명, 서해안유류유출사고 이후 관광객이 감소하다 다양한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으로 다 -충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특성은 하절기를 중심으로 보령과 태안 등 해양관광권에 편중되게 방문하여 계절적 집중을 분산해야 함

② 관광현황 분석의 시사점

- 충남은 다채로운 관광자원으로 천혜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됨
- 충남 관광소권역별 자연관광자원은 주로 해양관광권에 집중 분포하여 편중된 경향이고, 각 권역별로도 관광자원 유형별로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연계하는 코스개발이 필요함.
- 풍부한 인문관광자원으로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농·어촌체험마을 등은 특색있는 관광상품과 체험관광의 육성이 요구됨
- 충남관광소권역별 인문관광자원은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금강문화권에 집중 분포하고, 내포문화관광권과 역사온천휴양권 순서로 입지하여 이들을 문화관광상품 및 콘텐츠 산업을 육성토록 해야함
- 관광개발과 관광기반시설에서 관광지는 지정된 관광지 조성축진이 필요하고, 관광특구는 기능활성화가 요구되며, 관광숙박시설은 업종별로 수요자별 확충이 요구됨
- 관광객이용시설과 관광관련시설인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은 지역중심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표지판도 입지 확충과 개선 및 정비와 기능 활성화가 필요함
- 문화기반시설은 양호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어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관광자원화가 요구됨
- 관광상품 및 관광인력에서 지역축제는 도대표축제 육성과 충남 마케팅을 위한 메가이벤트 개최가 필요하고, 민간주도형의 다양한 소규모 이벤트와 거리축제가 요구됨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 · 특산물과 향토음식 등은 관광상품으로 대중화가 필요하고, 관광인력은 활동분야와 활동대상자별 확충이 필요함
- 관광시장과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견 분석으로 충청남도 2009년도 내·외국관광객 수는 9,000여만명인데, 이들의 방문특성은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양관광권에 편중되기때문에 계절과 지역적 집중을 분산해야함

② 관광객과 지역주민 의견분석 및 시사점

① 관광객과 지역주민 의견조사 분석

■ 관광객

- 관광객들은 충남관광에 대하여 경험한 비율이 75.7%로 높았으며, 주로 충청권과 경기권 관광객들이 많이 나타났음
- 충남관광 횡수로는 평균 8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50대가 12.1회로 비교적 높았고 지역별로는 전라권과 충청권이 높았으나 경상권은 4.3회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음
- 충남여행시 방문관광지 갯수로 평균 3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거주지가 멀수록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하고 있음
- 충남여행 동기는 ‘친구/친지의 권유’ 또는 ‘예전 관광 경험’이 31.3%와 26.6%로 높게 나타났으며, 10대~20대는 ‘친구/친지의 권유’, 30대~40대는 ‘예전 관광경험’, 50대~60대는 ‘단체 모임 및 동호회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여행 목적은 ‘가족여행/휴양/휴식’이 30.8%, ‘해수욕장방문’이 25.4%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여행 동반자로 친구(연인포함)와 가족/친지가 각각 40.5%, 37.9%로 높게 나타났고 동반인원은 3~5명이 45.1%로 높게 나타났음
- 충남여행시 주로 교통수단은 ‘자가용’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류기간은 ‘1박 2일’이 43.4%, 숙박시 이용시설은 ‘펜션’이 52.6%로 나타났음
- 충남여행 경비는 전체가 242,520원으로 나타났으며, 세부항목을 보면 교통비 70,194원, 식음료비 84,502원, 숙박비 119,574원, 상품구입비 51,324원, 유흥비 51,319원, 기타비 53,775원으로 나타났음
- 충남관광 잠재력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관광 발전방향으로 ‘해양중심의 관광지’가 29.5%로 가장 높았음
- 충남관광 개선점으로 ‘교통시설 확충’과 ‘관광인프라시설 확충’이 각각 18.1%와 17.1%로 높게 나타났음
- 방문희망 충남관광지로는 ‘대천해수욕장’이 가장 높았으며, ‘안면도’, ‘계룡산’, ‘공주’ 등도 높게 나타났음
- 충남대표 관광자원으로는 볼거리로 ‘서해바다’가 먹거리로 ‘서해안 해산물’, 체험거리로 ‘머드 체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충남관광만족도로 평점 3.70으로 나타나 관광객들은 충남관광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여행지 재방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보다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주민

- 지역민이 생각하는 충남관광 이미지는 평점 3.6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잠재력으로는 평점 3.66점으로 이미지보다는 향후 잠재력에 대해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음
- 충남의 우수자원으로 ‘역사문화 등 인문자원’과 ‘자연자원’이 각각 26.1%와 24.9%로 높게 나타났다음
- 충남의 관광개발 방향으로는 ‘해양중심의 관광지’가 32.2%로 가장 높았고 충남의 특화자원으로는 ‘공주·부여 백제문화’가 1위로 나타났다음
- 지역별 특화자원으로는 공주는 계룡산과 무령왕릉, 보령이 머드축제와 성주산, 서산이 간월도와 간월암, 6쪽마늘, 서천이 춘장대와 갈대밭, 한산모시로 나타났다음
- 아산은 온천과 외암리 민속마을, 현충사, 예산은 예당저수지, 수덕사, 덕산온천, 추사고택, 천안은 독립기념관, 병천순대, 청양은 칠갑산, 고추, 구기자, 태안은 꽃지해수욕장, 만리포해수욕장, 안면도, 홍성은 남당리, 내포축제, 대하축제, 용봉산, 오서산으로 나타났다음
- 충남의 관광개선사항으로는 ‘관광인프라시설 확충’과 ‘교통시설 확충’이 20.4%와 17.3%로 가장 높았음
- 충남관광개발 찬성의사는 평점 4.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지역민의 개발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시 지역주민 참여범위는 ‘시작단계의 주민의견 수렴행사 및 공청회 참여 등 적극적인 수준’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음
- 충남의 대표관광자원으로 볼거리는 ‘부여, 공주 등 백제유적지’, 먹거리는 ‘서해안 해산물’, 축제 및 이벤트 행사는 ‘보령 머드축제’, 역사인물은 ‘이순신 장군’으로 나타났다음

< 표 5 > 관광객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 분석의 종합

구 분	분 석 의 종 합
관광객 의견 조사분석	<p>-관광객행태조사결과, 충남 관광경험자 75.7%, 방문관광지수 평균 3회, 여행동기 ‘친구/친지의 권유’ 31.3%, 여행 목적 ‘가족여행/휴양/휴식’ 30.8%, 여행동반자 유형 ‘친구(연인포함)’ 40.5%로 나타났다</p> <p>-여행동반인원은 3~5명은 45.1고, 교통수단 ‘자가용’ 58.3%, 체류기간 ‘1박 2일’, 43.4%, 숙박시 이용시설 ‘펜션’ 52.6%임.</p> <p>-충남여행경비로 전체비용 242,520원, 각각 교통비 70,194원, 식음료비 84,502원, 숙박비 119,574원, 상품구입비 51,324원, 유흥비 51,319, 기타비 53,775원으로 응답</p> <p>-관광잠재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33.2%, 관광발전방향은 ‘해양중심의 관광지’ 29.5%, 관광개선점은 ‘교통시설 확충(접근성 증대)’ 18.1%임.</p> <p>-방문희망 관광지는 1순위는 대천해수욕장·보령, 2순위 안면도, 3순위 계룡산(갑사, 동학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 <p>-충남 대표관광자원은 볼거리로 ‘서해바다’, 먹거리에 ‘서해안 해산물’, ‘머드(축제)체험’등이 가장 많았음.</p> <p>-관광 전체만족도는 평점 3.70점, 관광지재방문 3.60점, 다른 사람에게 방문 권유는 3.7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p>
지역주민 의견조사 분석	<p>-지역주민의 충남관광이미지는 평점 3.61점, 관광 잠재력 평점 3.66점으로 관광이미지보다는 향후 잠재력에 대해 기대치가 높음</p> <p>-충남의 우수 관광자원은 ‘역사문화 등 인문자원’이 26.1%, ‘자연자원’ 24.9%, ‘지역특산품 등 가공자원’ 21.1% 등의 순임.</p> <p>-충남관광개발방향은 ‘해양중심의 관광지’ 32.2%, ‘역사문화자원 중심 개발’ 20.1%, 충남특화자원은 ‘공주·부여 백제문화’ 1순위, ‘대천해수욕장·보령·머드’ 가 2순위, ‘계룡산·동학사·갑사’ 가 3순위임</p> <p>-충남관광개선사항은 ‘관광인프라시설 확충’ 26.0%, 충남관광개발시 참여의사는 ‘그렇다’ 43.4%, 개발시 지역주민 참여범위는 ‘시작단계의 주민의견수렴행사 및 공청회참여 등 적극적인 수준’ 45.5%임.</p> <p>-충남 대표적 관광자원 볼거리는 ‘부여, 공주 등 백제유적지’, 먹거리는 ‘해산물’, 대표적 축제 및 이벤트는 ‘보령머드축제’, 대표적 역사인물은 ‘이순신 장군’으로 나타남</p>

② 분석의 시사점

- 관광객 행태조사 결과에서는 충남 관광경험자는 주로 충청권과 경기권 관광객, 방문관광지는 평균 3회, 여행동기 ‘친구/친지의 권유, 여행목적은 ‘가족여행/휴양/휴식’, 동반자 유형은 ‘친구(연인포함)’임을 고려한 관광표적시장의 선정이 요구됨
- 여행동반 인원은 3~5명, 교통수단은 ‘자가용’, 체류기간은 ‘1박 2일’, 숙박이용시설은 ‘펜션’, 충남여행시 경비로 전체비용은 242,520원이었음. 이에 따라서 관광객의 지출비용이 지역주민들의 관광소득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함
- 관광객 만족도는 평점 3.70점, 다른 사람에게 방문 권유는 3.71점으로 나타나 구전에 의한 관광마케팅이 필요함
- 지역주민 의식조사 분석에서 충남관광 이미지는 평점 3.61점보다 관광 잠재력은

평점 3.66점으로 향후 잠재력에 대해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남의 우수 관광자원은 ‘역사문화 등 인문자원’, ‘자연자원’, ‘지역특산물 등 가공자원’ 등의 순으로 관광상품화요구됨
- 충남 관광개발 방향은 ‘해양중심의 관광지’와 ‘역사문화자원 중심 개발’이 높고, 특화자원은 ‘공주·부여 백제문화’가 중요하게 제시되어 해양과 역사문화관광개발의 집중이 필요함
- 충남 관광개선사항은 ‘관광인프라시설 확충’과 충남관광개발시 참여 의사와 개발시 지역주민 참여범위는 ‘시작단계의 주민의견수렴행사 및 공청회참여 등 적극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음

③ 관련계획 및 법규분석과 시사점

① 관련계획 및 법규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는 기본방향에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을 반영해야함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충남도의 목표는 전통문화 및 해양관광활성화이고, 전략은 백제·유교·내포문화권 역사자원 발굴 및 관광명소 조성, 전통산업(모시, 인삼 재배)의 관광자원화, 태안을 거점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08~2020)에서는 기본목표에 「매력적인 문화·환경」, 세종시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기능강화가 필요함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강의 인접지 수변관광위락자원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이전계획은 명품 문화관광도시기능 강화가 필요함
- 안면도 연륙교 건설공사는 관광명소화 및 연접지역 관광활성화가 필요하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2005)은 백제문화의 세계화 및 콘텐츠산업화가 요구됨
-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조성사업의 조성촉진 및 관광상품화가 필요하고,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관광도시로 개발로 추진되어야 함

■ 관련 법규 및 정책 분석

- 관광 관련 법규는 관광법규를 비롯하여 상위법규, 개발, 개발규제, 세제, 토지, 개발촉진 및 특정지역 관련 법규 등이 있는데 관련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사업인허가시 검토, 예산확보 등에 활용이 필요함
- 주요 상위법규는 관광개발시 법규에 따라 사업승인 추진, 주요 관광법규는 지역관광개발과 관광지 개발시 적용, 주요 개발법규는 관광 관련 시설과 공간의 개발시 적용이 필요함
- 주요 개발규제 법규는 관광개발과 사업승인 및 인허가시 적용과 주요 토지취득 관련 법규는 관광개발과 사업승인 및 인허가시, 주요 세제 관련 법규는 사업승인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적용해야함

■ 관련재원과 충청남도 관광행정 분석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역 관광사업체 지원시 적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문화 및 관광사업 추진시 예산확보에 적용해야함
- 관광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관광사업 인허가 및 사업유치시 적용해야함
- 충청남도 관광재원 현황은 전체예산 대비 관광 예산의 비중이 미흡하여 관광예산 배정 확충 필요하고, 지정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투자실적이 저조하여 재정확충과 민자유치 촉진이 요구됨
- 관광업무 관련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적 업무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시·군 관광 관련조직에서도 현대적 업무분담과 기능적 업무협력 조직강화가 요구됨

② 분석의 시사점

- 국가 및 광역권의 관광정책과 각종 계획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 및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미래 예측이 요구됨
- 제5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있어 상위 관광 정책 및 계획에 제시된 비전 및 목표와 부합하는 비전 및 세부 목표, 전략 등을 설정하여 사업운영의 원활함과 일관적인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의 용이성을 확보하도록 함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상에서 충남지역은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으로 육성’함이 기본적인 개발 방향이며, 국제수준의 해양관광단지 조성, 백제문화권의 지속적 발

전, 해양생태자원의 친환경적 관광개발 추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수용되어야 할 것임

< 표 6 > 관련계획 및 법규의 분석종합

구 분	변 화 및 전 망
상위 및 관련계획	<p>—상위계획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녹색국토 창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개발, 충남의 서해안 해양관광 중심지역으로 육성, 국제적 해양관광중심지대로 육성을 반영해야함.</p> <p>—충청남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08~2020)에서는 기본목표에 「매력있는 문화·환경」으로, 세종시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기능 강화가 필요</p> <p>—4대강살리기사업은 금강 인접지 수변관광위탁자원의 활성화, 충남도청이전은 명품 문화관광도시기능 강화, 안면도 연륙교 건설공사는 관광명소화 및 연접 지역 관광활성화가 필요</p> <p>—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계획(2005)은 백제문화의 세계화 및 콘텐츠산업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조성사업의 조성촉진 및 관광상품화가 필요</p> <p>—태안 관광테저형 기업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서해안 관광벨트의 거점관광도시로 개발로 추진되어야함</p>
관련 법규 및 정책 분석	<p>—관광 관련법규는 관광법규를 비롯하여 상위법규, 개발, 개발규제, 세제, 토지, 개발촉진 및 특정지역 관련 법규 등은 관련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사업인허가시 검토, 예산확보 등에 활용이 필요</p> <p>—상위법규는 관광개발시 법규에 따라 사업승인 추진, 관광법규는 지역관광개발과 관광지 개발시 적용, 개발법규는 관광 관련 시설과 공간의 개발시 적용이 필요</p> <p>—개발규제 법규는 관광개발과 사업승인 및 인허가시 적용과 토지취득 관련 법규는 관광개발과 사업승인 및 인허가시, 세제 관련 법규는 사업승인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적용해야함.</p>
관련재원과 충청남도 관광행정 현황	<p>—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역 관광사업체 지원시 적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문화 및 관광사업 추진시 예산확보, 관광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관광사업 인허가 및 사업유치시 적용</p> <p>—충청남도 관광재원 현황은 전체예산 대비 관광 예산의 비중이 미흡하여 관광예산배정 확충 필요, 지정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투자실적이 저조하여 재정확충과 민자 유치 촉진이 요구</p> <p>—관광업무 관련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적 업무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시·군 관광 관련조직에서도 현대적 업무분담과 기능적 업무협력 조직강화가 요구됨</p>

- 또한 동·서·남해안 초광역권 개발계획 상에서 충남지역은 ‘환황해권 국제적 레저지대’로 계획되고 있는 바, 해양관광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며, 제3차 충청남도종합계획 상에서 관광분야 추진시책의 ‘매력있는 문화·환경’에 부합하도록 각 시·군별로 개성 있는 관광테마 및 콘텐츠 확보와 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광역계획 중 내포신도시, 공주시와 연기군의 세종시 조성사업에 따라 정주민의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백제문화권과 내포문화권, 논산 기호유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충남의 3대 문화권 개발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추진해야 함
- 또한 보령~안면도간 연육교 사업은 통해 호남지역 관광객이 안면도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안면도 지역의 관광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수용태세가 필요할 것임
- 관련 법규 및 정책 분석에서는 관광법규를 비롯하여 상위법규, 개발, 개발규제, 세제, 토지, 개발촉진 및 특정지역 관련 법규 등이 있는데 관련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사업인허가시 검토, 예산확보 등에 활용이 필요함
- 관련재원과 충청남도 관광행정 현황에서는 관광산업은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 및 여건 등에 매우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언론 및 대중매체, 구전효과 등 관광홍보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광산업 및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함
- 현재 국내 관광시장은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신규 관광지의 개발보다는 테마관광명소 개발,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 또는 리모델링 개발,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관광진흥에 관련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충청남도의 관광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문화예술, 관광개발, 문화재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 특정 관광지(자원), 축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및 개발사업 성격의 변화에 따라 관광진흥, 홍보를 포함한 관광지 리모델링 및 활성화, 축제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시군의 관광조직에 있어서도 ‘관광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배치와 조직 보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4 SWOT분석 및 과제진단

① SWOT분석

■ 강점요인(Strength)

Ⅰ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자연자원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보유

- 천혜의 수려한 자연관광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제공
 - 국·도립 자연공원,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 수목원 및 식물원, 온천, 해수욕장 등과 문화재, 전통문화와 유물·유적등 보유
-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역사문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 논산을 거점으로 하는 기호유교문화 등 3대문화권의 형성지역
- 또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된 보령머드축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등 전국으로 집객력 강한 축제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의 관광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보유
- 관광객 조사결과 충남의 대표관광자원은 서해바다와 서해안 해산물, 잠재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이고, 관광만족도는 3.7(5점 만점)으로 비교적 양호하여 관광발전 가능성을 내재

Ⅱ 대중적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와 관광자원 보유

- 착한 여행 즉, 대안관광에 적합한 역사유적지와 민속마을, 갯벌과 습지, 사구 등 생태관광지, 식물원과 해수욕장 등 다수 입지
-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 등 농촌과 어촌의 휴양·체험공간 등의 녹색관광자원으로 잠재적 도시관광객을 유치
- 백제문화권의 공주·부여와 내포문화권의 홍성과 서산 해미 등 역사문화도시의 답사여행지로 훌륭한 관광자원임
- 서해안의 해안과 어촌, 항구, 섬 등과 내륙의 산과 계곡, 강과 호수 등이 산재하여 생활관광지로서 매우 잠재력이 높음

Ⅲ 중국과 수도권 및 전국에서의 접근성 양호

- 당진·평택항에서 중국 상해 인근의 연운항으로 국제 여객선이 운항하고, 대중국과 최단거리로 중국관광객 직접 유치 유리
- 전국 교통망의 결절지로서 영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광으로 유리한 입지조건

-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영서, 영호남으로부터의 다양한 교통편에 의한 관광객 방문에 유리
-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최대관광수요 시장인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 용이함
 - 천안~논산, 당진~대전, 서천~공주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충남권간의 내부 접근성도 용이함
- KTX의 전라선(논산, 계룡), 경부선(천안아산역)을 통해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편리함

■ 지리적인 입지상 관광수요시장 풍부

- 충청남도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중부지역으로 2천만명의 수도권 및 영·호남 지역의 풍부한 관광수요시장을 가지고 있음
- 특히 환황해권 해양레저시대 대비하여 세계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과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일본과는 가까운 입지적 장점이 있음

■ 약점요인(Weakness)

■ 충남권 관광이미지 제고 부족

- 충남권은 다양한 해양레저, 역사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충남권 관광 이미지 제고가 부족함
 - 충남관광 이미지는 평점 3.61점이고, 관광잠재력은 3.66점으로 이미지보다 향후 잠재력 기대치가 높음
- 충남의 우수 관광자원은 역사문화이나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은 백제문화는 잘 알지만 내포문화와 유교문화는 이미지 전달이 미흡

■ 관광객의 지역편중, 계절적 요인 심화

- 충남권 지역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남권 16개 시·군의 관광객 수는 약 89,624천명(2009년)에 이르나, 태안, 보령, 아산 3개 시군에(약 42,293천명, 47.2%) 집중되고 있음
- 태안, 보령은 해수욕장 관광자원으로 대표되는 지역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하절기 집중되고 있어, 계절적 편중이 높은 편임

■ 체류형 관광편의시설 공급 부족

- 충남권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관광지, 휴양림 등의 관광기반시설 공급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 관광객의 체류를 통해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류형관광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나, 충남권 관광현황 분석결과 체류형관광시설의 공급이 부족

■ 거점 관광도시기반 미흡 및 관광자원의 편중성

- 충남은 연간 9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으나 권역별로 편중된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거점 기능의 관광도시기반이 미흡함
- 자연공원과 해수욕장 등 자연자원은 백제금강문화관광권과 해양관광권, 문화재 등 인문관광자원은 백제금강문화권에 집중 분포
- 관광숙박시설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관련시설 등은 아산을 중심으로 역사온천유양권에 집중

■ 충남 3차 서비스 산업구조 전국 평균이하로 변화

- 충남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제기반으로 전국 제일의 지역총생산과 2차산업 비중이 증가함
- 반면, 관광과 문화, 여가서비스 등의 3차 산업이 전국 평균 이하의 산업구조로 변화하여 관광산업 기반여건의 취약화 우려

■ 관광사업의 기능적 연계추진과 홍보마케팅의 체계화 부재

- 충남은 관광지 개발과 지역축제의 개최 등 문화관광부서의 다양한 관광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타부서의 관광관련 사업의 연계추진이 부족
- 다양한 관광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홍보마케팅의 전문인력과 통합관리시스템이 없이 각 부서 또는 사업별로 진행됨

■ 기회요인(Opportunity)

■ 정주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관광여건 성숙

- 충남권의 정주인구 1999년 1,926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약 2,054천명으로 달하고 있어, 잠재적으로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적용될 것임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내포신도시, 세종도시 등 건설 등 지속적으로 외부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국민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한국·중국·일본의 팍스아시아(Pax Asiana)시대 도래로 충남의 입지상 관광여건이 성숙됨

■ 다양한 관광관련 정책,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 금강유역은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권에서는 금강, 백제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
- 또한 「서해안 초광역권 개발계획」,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보령~태안간 연육교 건설」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국책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
- 충남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정 개발사업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논산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의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고령화의 실버관광과 건강·웰빙·안전 등 확산

- 고령화로 관광, 여행, 패션 등 라이프스타일의 새로운 여가활동의 주도세력이 되고 있고, 여성층 역시 새로운 관광시장을 형성
-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웰빙, 안전 등이 국가 및 지역발전에 최우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 공정여행, 의료관광, MICE 등 새로운 관광시대 도래

- 순수 관광목적의 방문과 저비용지출 등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고부가가치 관광분야인 의료관광, MICE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등을 추진중임

■ 그린뉴딜 부상과 스마트 기술의 대중화

- 국제적 그린 코드와 에코이즘의 등장으로 녹색관광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친환경 관광 자원과 관광상품이 선호되고 있음
- 인터넷의 발달로 디지털 네트워킹이 국가와 지역간 문화를 통합하는 수단이며, 위치기반서비스가 신관광정보서비스 제공을 확산

■ 위협요인(Threat)

■ 인접지 관광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간 경쟁 심화

- 충남의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은 주변에 인접한 시도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도 유사한 관광사업들을 추진하여 상호 경쟁과 유치관광객이 분산됨
- 서해안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송산그린시티」, 전북의 「새만금 개발사업」 등 대규모 관광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지역간 관광산업 경쟁이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됨

- 서해안고속도로와 KTX 호남선의 복선화를 통해 수도권~호남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에 따라, 관광 집객력이 분산

■ 자연재해 및 질병에 의한 불안정한 관광시장

- 지역에 찾아오는 태풍이나 폭우, 폭설 등이나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관광시장 불안정 우려
- 신종플루, 구제역 등 예상치 못한 질병의 발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되어 관광객이 급감하고, 지역의 관광산업을 침체

■ 경제여건의 위축과 민간투자의 불투명

- 각종 개발계획 난립,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충남권에서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 위축되거나 장기화
- 충남은 지정관광지 25개소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백제문화단지, 내포 보부상촌 등 민자유치사업들이 많으나 민자유치가 부진
-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국내의 불안정한 경제여건은 민간기업체의 투자위축과 관광객 소비도 위축

■ 기후변화와 지역단체와의 마찰로 사업 지연

-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다양한 시책들로 인한 관광자원의 개발의 제약
- 해양, 산악, 강과 호수변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생태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역 관련 단체와의 마찰로 사업추진에 어려움 발생

② 해결과제

■ 강점 및 기회요인의 극대화

■ 충남 관광소권역별 관광거점도시 육성

- 충남의 관광권은 5대권으로 구분하여 공주·부여, 예산·홍성, 보령·태안, 천안, 연기 등이 있으므로 관광거점도시 기능을 강화해야함.
- 반면, 아산의 경우는 관광숙박시설로 관광호텔 6개소, 콘도미니엄 5개소 등이 있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관광소권별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함



[그림 1] 충청남도 관광 SWOT분석

■ 관광거점도시와 관광지간 관광축과 관광코스 개발

-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관광거점도시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충남은 해양과 내륙, 관광소권간의 관광축을 형성해야함
- 충남의 지정관광지와 자연발생 생활관광지, 역사유적지 등은 거점관광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광지간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

■ 국민관광의 착한여행을 위한 관광상품 발굴 육성

- 착한 여행은 최근 여행자들이 지향하는 최고 여행방식으로, 공정여행, 책임여행, 녹색여행, 에코투어 등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임
- 충남에는 착한여행을 위한 자연과 전통문화, 지역주민의 인심, 농어촌풍경과 생활체험, 로컬푸드 등등 다양한 관광상품 발굴 육성

■ 복지관광을 위한 관광개발과 관광정책 시행

-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충남에서 유니버설 관광도시와 관광지를 시범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아동·청소년(한부모, 조손가정 포함),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등에게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처럼 충남에서도 확대 시행

■ 팩스아시아나(Pax Asiana) 국제관광객 유치기반 마련

- 한국·중국·일본 중심의 팩스 아시아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백제여행상품을 발굴 육성
-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청주공항과 당진·평택항, 군산항 등으로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국제관광루트 개발

■ 신도시 연계 명품관광도시 및 연계 관광지 제공

- 내포신도시는 충남의 신도청소재지로서 문화·예술과 친환경 미래도시로 세계적 수준의 명품관광도시로 개발하여 관광명소화
- 세종시는 생태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역사 및 전통문화환경의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충남지역과 연계하는 관광코스 개발

■ 충남 3대문화권 개발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세계화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은 개발사업의 촉진, 논산 기호유교문화권은 특정지역 지정으로 3대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
- 충남의 3대 문화권은 백제문화 원형과 내포문화 및 기호유교문화 등의 역사문화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신관광시대의 관광산업 육성

- 인구의 50대 이상의 연령층 비중 증가와 고령화로 관광, 여행 등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여가활동 주도세력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
- 국가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MICE관광, 크루즈관광, 생태관광 등과 연계한 충남의 관련 산업 발굴 육성

■ 로컬관광산업과 녹색체험관광산업 육성

-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관광지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로컬관광산업 육성
- 국제적 그린 코드 등장으로 인한 녹색관광의 중요성 증대로 저탄소녹색성장의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역의 관광사업을 추진

■ 약점 및 위협요인의 보완

■ 충남 관광브랜드 육성과 이미지 제고

- 충남의 관광브랜드는 ‘넉넉해진 나 자신 느낌여행충남’이나 아직까지는 국내외에 알려지지 않아 관광브랜드 제고 방안 모색
- 지역주민의식조사 결과분석과 같이 충남의 관광이미지는 관광잠재력 점수보다 낮으므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 지역관광 균형발전과 관광사업 공동협력체계 구축

- 충남의 관광자원은 유형별로 각 시·군 및 관광소권역별로 집중되어 편중된 경향을 보이므로 지역 자원특성별 균형발전 방안 모색
- 충남 소관광권역별과 인접한 시·군지역간 관광사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

■ 문화관광도시 기반구축 및 관광편의시설 확충

- 관광권역별 관광거점도시는 도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숙박, 향토음식 등 관광기반시설을 도시재생 및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추진
- 관광도시 이외에도 관광지와 내륙과 강변, 해안관광도로 등 관광루트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확충

■ 유무형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제공

- 남의 각 지역에 구석구석 숨겨진 유무형의 관광자원들을 관광객의 수요에 맞도록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 제공
- 서해안의 해양과 섬, 항구, 어촌 등은 아직 관광자원화가 미흡하므로 다양한 해양관광상품을 발굴 육성

■ 지역 관광사업체의 육성과 관광인력 양성

- 지방의 자립적 관광산업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지역을 연고로 사업중인 지역 관광사업체를 전략적으로 육성
-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관광사업체 종사자와 전문분야 관광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충남 문화관광정책의 기능적 추진체계 구축

-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다각적인 관광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기획조정 의 기능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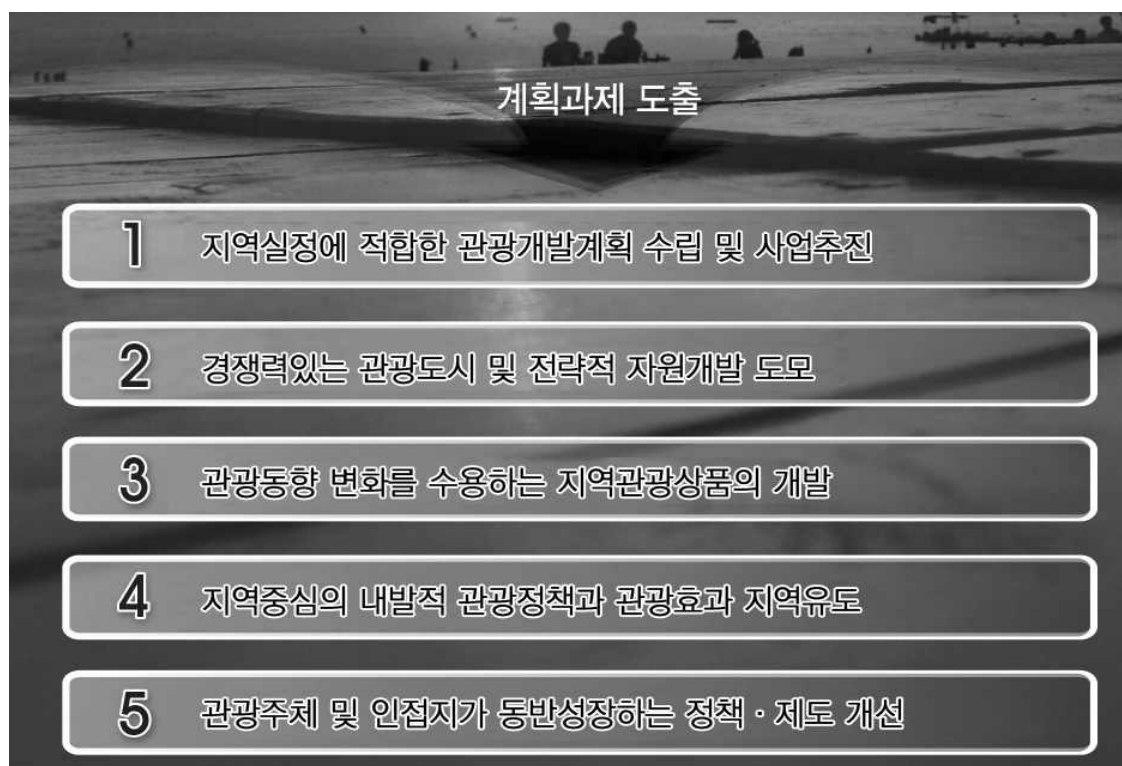
- 현대적 문화관광정책의 트렌드에 맞는 부서의 재편과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추진

■ 정보화 기술혁신에 적합한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 인터넷의 네트워크의 국가와 지역간 통합과 위치정보기반서비스는 신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정보화 기술에 적합한 홍보마케팅 추진
- 충남과 시군간의 통합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핸드폰·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안내와 자원해설 정보제공 추진

■ 민자 유치촉진 및 지역단체와 협력 관광사업 추진

- 관광거점도시와 관광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필수적이므로 다각적 인 센티브와 지원제도 모색
-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지역단체, 공공기관간의 관광협력체계 구축



[그림 2] 충청남도 관광계획의 과제

3.

충남 관광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

1 충남 관광중장기 비전과 전략

① 비전과 8대전략

- 충남관광의 비전은 한국의 중심에서 ‘지방관광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을 주는 愛鄉 충청남도’(착한 지역관광에 행복하고 정겨운 곳)으로 설정함
- 국토중심 전국민이 찾는 ‘국민관광’지역은 거점 관광도시 육성과 관광권역별 연계시스템 구축과 지방형 국민관광지 조성촉진 및 관광루트 활성화 등 추진
- 모두가 이용하고 향유하는 ‘복지관광’지역은 소통과 만남의 연대공정여행 추진과 소외계층의 관광기회 확대와 유니버설 관광지 조성 등 추진
- 구석구석 균형 성장하는 ‘산업관광’지역은 특색 유무형의 관광자원개발과 녹색산업관광 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체험관광과 이벤트축제의 차별 개최 등 추진
- 글로벌 관광명소가 자람인 ‘휴양관광’지역은 지역문화권 관광산업화와 국제휴양관광명소 개발과 자연 관광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역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등 추진



[그림 3]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의 목표와 전략

② 8대전략별 추진시책

4대목표	8대 추진전략 및 추진시책
국토중심의 전국민이 찾는 ‘국민관광’	1 허니포트형 관광도시 개발과 권역별 연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소권역 거점 관광도시 개발 • 관광소권거점관광도시관광축및관광루트구축 • 내포신도시 명품관광도시 조성 • 문화예술과온천휴양·회의관광도시육성
	2 지방형 관광지 조성과 주변 관광코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관광지의 지방형 개발촉진 모델사업 추진 • 지역명승지 및 생활관광지의 관광자원화 • 관광지 연계 관광코스 및 자전거·도보여행 육성
모두가 이용하고 향유하는 ‘복지관광’	3 주민과 만남이 있는 착한 여행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여행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발굴 육성 • 중저가 및 지역민 밀착 만남여행상품
	4 소외계층 관광향유기회확대와유니버설관광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복지관광제도 도입 및 사업추진 • 유니버설 관광지 및 실버휴양지 조성과 여행상품 운영
구석구석 균형 성장하는 ‘산업관광’	5 차별화된유무형 관광자원과 녹색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형 특색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운영 • 지역 전통산업 및 6차 관광산업 육성
	6 국제적 메가이벤트와 전략적 이벤트 축제의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명품축제의 개발과 신규축제 발굴·육성 • 지역축제의 유형별 차별육성제도 도입 실시
글로벌 관광명소가 자랑인 ‘휴양관광’	7 지역문화권 관광자원화와 국제휴양관광명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3대문화권 전략적 개발과 세계화 추진 •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제휴양관광명소 육성
	8 지역 관광사업체 육성과 맞춤형 관광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업체의 전략적 육성과 일자리 창출 • 지역 관광서비스 주체역량 및 관광행정력 강화 • 고객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추진

[그림 4] 제5차 충남권 계획의 8대 전략 실현을 위한 추진시책

② 충남 중단기 관광정책 비전과 목표

① 2013년 : 공정관광의 해

- 착한여행지와 루트의 발굴 및 육성
- 슬로우 여행길과 관광상품의 특화
- 지역 관광서비스와 홍보의 강화

② 2014년 : 힐링관광의 해

- 휴양치료 관광명소의 육성
- 멋과 맛의 향토여행 상품 제공
- 정이 담긴 관광서비스의 제공

③ 2015년 : 우리문화 관광의 해

-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관광활성화
- 유무형의 전통 여행상품의 개발 운영
- 찾아가는 관광홍보와 마케팅 실시

④ 2016년 : 고향사랑 관광의 해

- 애향 및 고향 관광상품 발굴 육성
- 지역관광업체 전략 지원사업 추진
- 재방문 관광만족사업 전개

③ 2013년 세부추진시책

1) 비전과 목표

① 비전과 목표

■ 비전 : 2013 충남 공정관광의 해

■ 3대 목표

- 착한여행지와 루트의 발굴 및 육성
- 슬로우 여행길과 관광상품의 특화
- 지역 관광서비스와 홍보의 강화

② 목표별 전략사업

■ 착한여행지와 루트의 발굴 및 육성

- 「시·군 방문의 달」 릴레이 개최
-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 시·군별 착한관광지 육성 명소화
- 충남 관광 우수 시·군 육성 지원사업
- 소외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시범관광지 선정 운영
-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인 초청 착한여행 팸투어 개최

■ 슬로우 여행길과 관광상품의 특화

- 「충남 슬로우 여행길 운영 활성화 사업
-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로의 여행
- 「소규모 수학여행 전담 보조교사」 시범 운영
- 외국인 대상 「버스자유여행상품」 운영 참여

■ 지역 관광서비스와 홍보의 강화

- 충남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충남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 인터넷 「충남 여행수기 및 사진 공모전」 개최
- 충남 해외사무소 활용 「충남관광 홍보관」 운영
- 충청남도 관광산업아카데미 교육과정 정기 운영
- 시·군(안면도) 관광지 조성 촉진 평가제 및 컨설팅 사업
- 시·군 관광개발 「관광진흥 자원단」 운영
- 새로운 내포시대의 대중국 관광객 충남 유치전략 마련

2) 세부추진시책의 선정

① 기존 2013년 시책사업 현황과 수정

■ 「시·군 방문의 달」 릴레이 개최

- ◇ 15개 시·군별로 방문의 달을 선정, 시·군 단위 이벤트 개최,
-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홍보 효과 극대화를 통해 지역관광 이미지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시군 방문의 달에 적합한 이벤트와 각종 「축제·행사·이벤트」 연계 시너지 효과 제고
- 시군별로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운영하여 관광객의 유인력을 제고
- 지역주민의 주도로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사업 추진

□ 세부 사업내용

- 시군별 연계 릴레이 슬로건 제작 : 15개 시·군이 함께 한다는 홍보 슬로건 필요
※ “거북이 달린다. 15”(영화제목 인용, 15개 시·군을 모두 다녀본다는 의미)
- 15개 시·군별로 한 달을 시·군의 달로 설정
 - 지역의 축제 개최시기와 관광자원 특색을 감안하여 연간 운영일정 확정
(예 : 꽃축제 시군은 봄철, 해안 시군은 여름, 등산/단풍 시군은 가을, 온천보유 시군은 겨울)
 - 한 달에 1~2개 인접 시·군을 지정, 지역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행·재정 지원으로 시·군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유도
- 지역내외, 다양한 매체 등에서 집약적인 시·군 관광 홍보
- 팸투어 등 해당 시·군 관련 道 사업 집중 지원
- 소요예산 : 150백만원(도비 45, 시·군비 105)
※ 전국 시도 방문의 해의 사례와 같이 신청서 제출과 평가제 도입으로 경쟁유도를 통한 예산지원 차등화 방안 채택

□ 기대효과

- 충남 지역관광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관광 역량 강화
- 시·군 방문의 해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로의 여행

- ◇ ‘10년부터 국내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명사와 함께하는 고향여행」 사업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
- 일본인을 대상으로 「명사와 함께하는 백제로의 여행」 관광프로그램으로 보완
- ⇒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문화에 애착과 향수를 갖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

□ 추진방향

- 일본 연계 백제유적을 중심으로 한 대표 관광상품으로 프로그램 선정
- 한국관광공사 주한 일본지사 네트워크 활용사업과 연계 추진
- 우선 일본인 대상 여행사와 자매·우호협력도시와 교류협력 사업으로 홍보 추진

□ 세부 사업내용

-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백제유적 및 명성 있는 백제 전문가 선정
 - ※ 예) 유적 : 공주(무령왕릉 등), 부여(미마지와 궁남지 등)
 - 명사 : 유홍준(前. 문화재청장),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등
- 백제문화에 좋은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으로 개발
 - 道+관광공사+주한 일본인 공동 모니터 투어 실시, 코스 확정
 -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시리즈형 여행상품으로 개발
 - 세부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가인원 최소화(35명 정도)
 - 전문가 해설을 전달할 수 있는 관광전문 일본어 통역원 배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홍보
- 소요예산 : 30백만원(도비) (※ 강사료, 안내책자 제작 등)

□ 기대효과

- 백제전문가와 함께 여행하는 사업의 이슈화로 외국인관광객 유치 촉진
- 일본인 등 외래 관광객의 백제고도 직접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홍보
- 전문가 해설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로 재방문 유도

■ 지역산업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추진

◇ 충남도내에 산재한 산업시설과 연계,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형
신관광수요(비즈니스+관광) 창출

⇒ 1·2·3산업의 관광자원화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현장(1·2·3차)을 관광대상으로 삼아 국가의 산업 및 참여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의 관광형태로 겸목적의 관광자원화

□ 추진방향

- 지역 특화산업체와 인지도가 높은 기업 등의 산업관광자원으로 활용 관광상품화
 - 관광상품과 산업관광 거점지 개발, 새로운 관광시장과 고용 창출
- 충남의 대표적인 산업관광상품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시·군과 지역 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산업관광 추진

□ 세부 사업내용

- 문화부 지원, 산업관광 추진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시·군과 협조, 산업관광이 가능한 업체 참여 독려 및 프로그램 등 개발
 - 시·군 소재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협력체계 구축 유도
 - ※ 예) : 아산(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당진(현대제철), 부여(고려인삼창)
- 수학여행 코스에 지역 산업체 투어 또는 체험 기회 확대
- 한국관광공사와 KOTRA 등과 연계하고, 인센티브 방한 단체 유치
-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군 의견 수렴 및 참여의사 조사와 성공방안 마련

□ 기대 효과

- 산업관광을 계기로 지자체·기업체 간 상호 협력관계 증대 강화
- 참여 기업체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일거양득 효과
- 관광의 계절적 요인을 탈피, 사계절 정기적인 관광상품으로 운영 가능

■ 충남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와 인터넷 사용자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충남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 SNS와 연동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편리한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01. ~ 2013. 09.
- 사업내용 : 도내 관광지 및 축제, 문화, 숙박, 식당 정보를 안내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SNS연동 서비스 포함)
- 사업비 : 120백만원(도비)

□ 그동안 추진상황 및 현 실태

- 관광 홈페이지 구축('04~'05) 및 공보관실 업무이관('09. 6) 운영(現在)
 - ※ 초기('04~'05) 구축당시 자료로 콘텐츠 현행화가 절실한 형편임.
- 모바일 홈페이지 시범서비스 실시('11. 2) 및 트위터 개설
 - ※ 주요 관광지 및 축제 등 70여 페이지에 불과, 추가·보완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기존 관광 홈페이지와 별도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콘텐츠의 신규 제작 및 스마트폰에 맞게 재배열
 - 신규로 구축된 콘텐츠는 기존 관광홈페이지에 활용
- 트위터와 블로그 등의 연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발

□ 기대효과

- 충남 문화 관광자원의 쉬운 접근 및 소통 가능한 채널 마련
- 모바일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기존 노후 홈페이지 동시 개편 효과

■ 「소규모 수학여행 전담 보조교사」 시범 운영

- ◇ 백제 역사·문화 관광자원 등 체험위주 소규모 수학여행단 적극 유치
- ◇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방문시 **지도교사 보조요원**을 배치, 안전하고 믿음 주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 도내 관광관련학과 설치대학과 협력사업 충남관광 활성화 도모
- 서울지역 교장교감단 팸투어 결과, 수학여행단 방문시 요구사항 적극 반영
- ※ '11년 서울지역 수학여행 방문인원 : 15,401명(초등 8,997, 중등 4,445, 고등 1,959)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1월
- 대상지역 : 공주, 부여
- 선발인원 : 35명 이내
- 추진내용
 - 도내 관광관련학과 설치대학과 보조교사 지원 협의(MOU체결 등)
 - 소규모 수학여행 주·야간 안전관리 전담보조 교사 육성 지원
- 소요예산 : 25백만원(도비 5, 시·군비 20)
- 산출내역
 - 활동비 : 35명 × 50천원 × 10일 = 17,500천원
 - 운영비 : 35명 × 200천원 = 7,000천원(명찰, 수첩, 모자, 보험가입 등)
 - 참가자 교육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기대효과

- 안전하고 유익한 소규모 수학여행 만족도 및 인지도 제고
- 소규모 수학여행단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인터넷 「충남 여행수기 및 사진 공모전」 개최

◇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활용 여행수기 및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 지속적인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방법 다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배경

- 충남에서 기존 개발된 관광코스는 다양해진 관광객의 취향과 요구 충족 한계
- 따라서 인터넷 등의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시대에서 홍보방법의 다양화가 요구
※ 지속적인 관광코스 개발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홍보 필요.

□ 세부 사업내용

-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여행수기 및 사진 공모
※ 충남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을 포함한 매력적인 여행상품 선정
-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여행수기 및 사진 활용 관광책자 제작
 - 다양한 코스 개발을 통한 여행객의 욕구 충족
 - 관광객이 직접 소개하는 코스, 음식점, 숙박지 등 소개
- 팸투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효과 유발
- 소요예산(시상금 및 홍보비) : 40백만원(도비)

□ 기대효과

- 관광객이 인터넷으로 직접 참여하는 여행수기 및 사진전을 개최하고, 관광책자 제작을 통해 홍보 극대화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충남관광 붐 조성의 기회 마련

■ 충남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 ◇ 관광업체 종사자 및 관광관련학과 학생 대상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관광 서비스 질 향상
⇒ 「관광충남」의 대표적 경진대회로 육성, 지역주민 관광 인력 육성의 장으로 활용

□ 추진방향

- 도내 관광업체 종사자 및 관광학과 학생 대상 관광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 충남의 우수 농수산물을 이용한 경연대회 개최로 지역 상품을 이용한 신 메뉴 개발 및 대표 먹거리로 연계 홍보

□ 추진계획

- 개최 시·군 확정 및 공동개최 단체 선정
- 3개 부문(조리, 식음료, 홍보)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 경연대회 개최 : 2013. 하반기 중
- 경연방법
 - 조 리 : 한·양·일식 신메뉴 개발 및 서비스 매뉴얼에 의한 경연
 - 식음료 : 테이블 세팅 및 서비스
 - 홍 보 :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 외국어 홍보 경연
- ※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이용 예) 공주(밤), 청양(구기자), 금산(인삼) 등
- 소요예산 : 20백만원(도비) (※ 홍보비, 시상금 등)

□ 기대효과

- 지역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메뉴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광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인한 국내외 관광객 유인의 기회 마련

■ 외국인 대상 「버스자유여행상품」 운영 참여

- ◇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외국인 전용 버스여행상품의 연계 『k-셔틀(shuttle)』 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
⇒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로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 추진배경

- 현재 주요 한국관광상품이 서울, 제주 등 특정지역위주로 구성
- 지방 곳곳에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여행상품 필요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3년 1월 ~ 12월
- 참여대상 : 서울시를 비롯한 참여 희망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참여
- 추진내용
 - 버스자유여행상품 브랜드화 : 『k-셔틀(shuttle)』

《 k-셔틀이란? 》

- 대한민국의 주요 관광명소를 연계하는 전국 순환형 셔틀버스
- 전 일정 참가 또는 구간별 자유여행이 가능한 신개념 투어
- 코스의 우수성, 가격의 합리성, 운용의 다양성이 보장된 투어 시스템

- 주요코스(안) : 2박3일로 구성
 - 서울→부여(백제문화단지, 부소산성)→전주→순천→여수→부산
- 소요예산 : 20백만원(전액 도비)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
 - 안내책자 제작 및 마케팅 활동 등 운영 보조

□ 기대효과

- 정기적 · 지속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관광 활성화

■ 충남 해외사무소 활용 '충남관광 홍보관' 운영

- ◇ 고부가가치 방한상품 개발과 FIT 등 고객맞춤형 마케팅 확대
- ◇ 외래 관광객 지방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 '11년 외국인 유료관광객 수 : 645천명('10년 661천명)

□ 추진배경

- 아웃바운드 시장 확대로 방한 관광객 증가 전망
- 한류 목적 방한객 및 여성 쇼핑객 증가 등 FIT 성장 전망
- 한류드라마 방영증가 등으로 한국관광 이미지 상승 및 계절상품 인기
- ⇒ 충남 해외사무소를 통한 충남관광 홍보 영상물 및 간행물 홍보

□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13년 3월 ~ 12월
- 대상국가 : 4개국 5개소
- ※ 해외사무소 현황(불임) : 미국 1, 중국 2, 일본 1, 브라질 1
- 추진내용
 - 충남 해외사무소를 활용 충남 주요축제 등 관광자원 홍보
 - 충남관광 홍보 영상 및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추진
- 소요예산 : 25백만원(도비)
- 산출내역
 - LED 모니터 등 장비 구입 : 1,000,000원 × 5개 = 5백만원
 - 홍보용 책장 기자재 구입 : 2,000,000원 × 5개 = 10백만원
 - 홍보자료 등 인쇄물 : 2,000,000원 × 5개 = 10백만원

□ 기대효과

-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현지 관광분위기에 맞는 해외마케팅 효과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

■ 시·군 관광개발 『관광진흥 지원단』 운영 관리

- ◇ 시·군별 관광자원사업(관광지, 생태, 문화자원, 서해안 등) 개발계획 수립시
도, 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참여와 컨설팅 지원단 운영
- ⇒ 계획단계부터 도와 사전 협의로 효율적인 관광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 지원

□ 추진배경

- 개발사업이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계획·개발되고 있어, 시·군간 연계성 부족 및
도내 관광개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사업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의견개진이 아닌 사업비의 경쟁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추진
- ⇒ 사업 확정 후 빈번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개발 지연 및 예산 미집행 등 각종
부작용 발생

□ 추진계획

- 사업예산 배정시(또는 필요시) 수시로 도 및 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관광진흥 지원단』을 구성하여 도내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
- ※ 충남발전연구원의 『관광진흥 연구단』과 공동구성 협력 운영 추진
- 2013년 신규사업부터 시행
- ⇒ 개발계획시(착수·중간·최종) 도와 시·군간 협의 추진
- 2013년 신규사업부터 시행

□ 기대효과

- 관광사업의 도와 시·군간 충분한 협의 및 전문가 의견 개진으로 도내 관광사업의
효율적 관리
- 관광사업의 내실 있는 사전 검토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행정 신뢰성 제고

② 2013년 신규 시책사업 발굴 : 기존사업 고려 선택적으로 실시

■ 시·군별 착한관광지 육성 명소화 - 시·군 방문의 달 연계 사업

- ◇ 충남의 관광명소 200곳을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정보를 제공
 - 명소마케팅을 적용하여 1시·군 1항토 자랑 관광명소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2013년 시·군 방문의 달과 연계한 착한관광지로 육성
- ◇ 또한, 2011년 선정·발표한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은 도내 관광자원 중 최고(最高)·최고(最古)·최대(最大)·최장(最長)·유일(唯一)·특이(特異) 관광자원 55건을 선정
 - ‘충남으로 오시오(55)’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2012년 3곳을 재선정함

□ 추진방향

- 충남의 1시·군 1항토 착한관광명소 만들기 사업 추진
- 시·군 방문의 달과 연계하여 대표 관광명소로 소개하고, 집중 홍보 실시
- 착한 가격의 관광코스과 향토음식, 체험관광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

□ 세부 사업내용

- 각 시군별로 2013년 착한 관광명소를 선택하여 소개
 - 충남 관광명소 200곳,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 55개소 중 착한관광명소 선정
- 착한 관광명소 관광루트와 코스의 발굴 및 관광상품화
 - 관광명소 연계 관광코스 발굴과 여행길 제공
 - 인접 향토음식과 특산물 쇼핑 등 착한음식점과 착한시장 선정 제공
 - 전통문화체험, 생태체험, 축제와 이벤트 참여프로그램 개최
- 관광시책자문단과 충남의 시군별 착한관광명소 사전 선정 작업 추진(2012년)
 - 충남 관광명소 200곳,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 55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선정
- 여행전문가 또는 여행기자를 시군별 착한관광명소 소개
- 농촌체험관광마을 및 고택,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 중심 착한관광자원 소개

□ 기대효과

- 착한 여행지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질적 관광기회의 제공
- 관광지 개발중심의 관광패턴에서 관광자원재생과 활용으로 관광투자비 절약

■ 충남 관광 우수 시·군 육성 지원사업- 시·군 방문의 달 연계 사업

◇ 충남 시·군 방문의 달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시군 표창

- 2013년 시·군방문의 달의 사업신청을 사전에 받고, 추진사업에 대하여 우수 시군에 표창과 지원사업을 실시

□ 추진방향

- 2013년 충남 관광 시·군 방문의 해와 연계한 지원사업으로 실시
- 인접 시군과 연계성을 고려한 12개월 시군 방문의 달 선정의 인센티브 제공
- 방문의 달 사업계획 평가 후 사업지원 또는 사업 추진 후 포상하는 방식 채택

□ 세부 사업내용

- 충남 15개 시·군 방문의 달 추진계획서 수립
 - ※ 사전 지침서 작성 배포 및 15개 시·군관광담당자 사업추진 협의 후 시행
- 현재 충남도 지원육성 축제와 같이 시·군 방문의 달 지원사업 추진
 - 1안 : 15개 시군의 사업계획서 평가 후 우수 시·군 사업비 지원
 - 2안 : 시·군별 사업 추진 후 2013년 말 사업 평가 후 포상 실시
- 시·군 방문의 달 관광객 방문 만족도에 대한 인터넷 조사 실시
 - 충남 관광 수기 및 사진 공모전과 병행하여 실시
- 12개월 이므로 인접 시·군간 연합 실시의 경우 지원 인센티브 부여
- 소요예산 : 3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150)

□ 기대효과

- 충남 시·군 방문의 해 추진에 대한 시·군 참여의욕 고취 및 사기 앙양
- 시·군 방문의 해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창출

■ 충남 슬로우 여행길 운영 활성화 사업

- ◇ 충남은 길사업으로 충남연가로 백제길, 태안바라길, 고성가도 등 루트를 조성
 - 자동차 여행과 도보탐방의 병행길로 자연과 역사문화적 의미의 체험이 가능
- ◇ 시군별로는 솔바람길 사업을 추진하여 1개소씩 선정하여 운영을 확대하고 있음
 - 2010년 마곡사 솔바람길 및 2011년 태조산솔바람길, 아라메솔바람길, 계백혼 솔바람길, 성홍산성솔바람길, 거북이마을솔바람길, 온천솔바람길 6개소 등이 조성 운영중임
- ◇ 최근 백제 옛길 조성사업으로 공주, 부여, 논산, 서천, 익산 등 백제문화권에 백제 역사유적 탐방여행길을 발굴 육성하고 있음.
- ◇ 따라서 이들 다양한 여행길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면서 이용을 촉진할 수
충남 슬로우 여행길 운영 활성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추진방향

- 충남의 구석구석 찾고 싶은 슬로우 여행길에 대한 가이드북 발간
- 기존에 선정되어 조성된 여행길의 고객 중심 이야기길 특화와 관광객 유치
- 충남의 슬로우 여행길 대상의 테마 이벤트와 지역문화행사 개최

□ 세부 사업내용

- 각 시군 솔바람 길 연계 느린 여행길 사업 활성화
 - 천안, 공주, 논산, 부여, 예산, 홍성, 서천, 태안 등의 솔바람 길 사업 활성화와 각 시·군 확대 실시
- 백제 옛길 관광루트와 코스의 발굴 및 관광상품화
 - 세계 유네스코 유적 외국인 도보여행길
 - 가족과 함께하는 백제거리 박물관 도보여행길
 - 백제시대를 체험하는 수학여행 도보여행길 등
- 충남의 슬로우 여행길 가이드북 작성 배포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충남 뚜르드 비단강 여행길 관광코스화(세종시↔공주↔부여↔서천)
 - 자전거 길 주요 거점지역에 편의 및 휴게시설 조성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충남 기존 조성 운영중인 다양한 여행길 사업에 대한 활성화 기회 마련
- 길여행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문화교류 촉진과 관광수입 증대 기대

■ 소외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시범관광지 선정 운영

- ◇ 국내외적으로 유명도시와 관광지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취약층 관광객 편의 제공
 - 현재 강원도 횡성군의 숲채원은 청소년, 일반인 이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숲 체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유니버설 산림휴양지임
- ◇ 충남에도 일반인 이외에 장애인,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계층이 방문을 하여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시범관광지를 선정하여 운영

□ 추진방향

- 충남의 관광지 중 소외계층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관광지 조성
- 유니버설 시범관광지에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충남의 역사문화와 해안 해수욕장 관광지를 유니버설 관광지로 선정 육성

□ 세부 사업내용

- 백제문화단지의 유니버설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 백제문화단지의 운영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기반시설 조성 추진 : 롯데리조트 조성사업과 연계
 - 소외계층을 위한 이동동선, 관광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을 기존 시설에 보완
 - 소외계층을 위한 해설, 안내,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하계 유니버설해수욕장 시범 운영
 - 안면도관광지 연계 여름철 유니버설해수욕장 지정 운영
 - 해수욕장 모래사장과 각 중 편의시설에 대한 무장애 시설 보완
 - 소외계층을 위한 여름휴가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 충남지역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위탁운영 추진(여행바우처 사업과 연계 추진검토)

□ 기대효과

- 충남의 복지관광에 대한 실천으로 관광이미지 쇄신과 복지정책 확대기반 마련
- 소외계층의 관광기회제공을 통한 지역관광의 폭넓은 향유기회 제공

■ 충청남도 관광산업아카데미 교육과정 정기 운영

- ◇ 충남은 2008년부터 관광 전문성 확보와 마인드제고를 위해 충남 관광아카데미를 실시하였음.
 - 2009년에는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민간관광자율조직과정, 농촌(생태)관광과정, 도시군 관광공무원 과정을 실시함.
 - 그러나 이들 사업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되기 어려움
- ◇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 농촌관광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통합하는 충남 관광아카데미 과정을 청양도립대학에 설립하여 운영

□ 추진방향

- 충남의 관광사업체와 관광공무원 등의 전문 교육시스템 구축
- 충남의 도립대학의 교육기관과 연계한 관광아카데미 과정 개설
- 기존의 관광 관련 교육과 시군 교육을 통합하여 체계적 교육기회 제공

□ 세부 사업내용

- 충남 관광산업아카데미 정기 실시.
 - 충남 관광산업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도립 청양대학 또는 관내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
- 충남 관광아카데미 교과과정의 전문화
 - 지역 관광서비스 과정(민간관광자율조직과정)
 - 문화관광해설사, 생태해설사 등 관광인력 양성과정
 - 도·시·군 관광공무원 과정
- 시·군별 농촌관광, 관광서비스 교육 등을 통합하여 도·시·군에서 분담
- 전문가와 워크숍 및 컨설팅 사업도 병행 추진
- 소요예산 : 350백만원(도비 50, 시·군 300)

□ 기대효과

- 충남 관광사업체와 도민, 관광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관광마인드 강화
- 개별 실시했던 관광교육의 통합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체계적 교육 실시 가능

■ 시·군(안면도) 관광지 조성 촉진 평가제 및 컨설팅 사업

- ◇ 충남은 2012년 현재 26개 관광지를 지정하여 조성사업을 추진중임
 - 2011년 관광지 평가 결과(충청남도, 제5차 충남권관광개발계획) 계획변경 및 보완 관광지는 안면도관광지의외 10개소, 원안 추진관광지는 대천해수욕장의외 14개소를 제시함
- ◇ 이 중 안면도 관광지는 꽃지지구와 지포지구로 분리가 필요하고,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중임.
 - 따라서 안면도관광지 조성촉진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절차의 시행 등이 필요

□ 추진방향

- 지정관광지의 정기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위원회 구성방안 마련
- 관광지 정기 평가를 위한 리콜제와 리모델링제 등 법적 근간 검토
- 관광지 조성촉진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사업 추진

□ 세부 사업내용

- 충남 관광육성 조례에 대한 개정으로 조례상 법적지위 확보
 - 관광지 조성촉진을 위한 정기평가 및 신규 관광지 지정 심의 조항
 - ※ 기존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제 2 장 제 4조 3 항의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의 운영 내용을 적용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적용해도 좋은 듯함.
- 관광지 평가제 도입
 - 2013년부터 정기평가를 위한 위원회 구성
 - 평가 항목 및 결과 조치사항, 행정적 추진절차 준비
- 리콜제(해제), 리모델링제, 특례사항 검토 등 시행지침 마련과 시군담당자 의견수렴
- 관광지운영위원회(충남관광정책자문단 활용) 구성 및 사업추진 준비

□ 기대효과

- 충남 기지정 관광지 조성 촉진 기회마련 및 신규 관광지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으로 사업추진의 객관성 확보
- 시·군 관광지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컨설팅으로 지역관광진흥에 기여

■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인 초청 ‘착한여행 팸투어’ 개최

- ◇ 2013년 시·군 방문의 달과 착한 관광명소, 슬로우 여행길을 설명하기 위한
충남 착한여행 팸투어 개최
 - 팸투어 초청 대상은 관광레저기자단(신문 및 잡지),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충남관광시책자문단 등 팸투어 개최
- ◇ 2013년 착학여행 팸투어에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지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관광공사 사장 초청 행사도 병행 개최

□ 추진방향

- 충남의 착한관광명소, 슬로우여행길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업 연계
- 충남의 15개 시·군 착한여행지 설명회 및 현장 팸투어 개최
- 충청남도과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협력 업무협약 또는 자매결연 체결

□ 세부 사업내용

- 충남의 착한관광명소와 슬로우여행길 홍보설명회 개최
 - 15개 시·군의 착한여행 대표 여행상품에 대한 소개와 홍보전 개최
 - 내포신도시 도청 또는 착한여행지 현장에서 개최
- 대표 착한여행지와 코스, 상품을 선정하여 팸투어 실시
 - 시·군별로 인접한 착한관광명소 3~4개소를 선정하여 팸투어코스 선정
 - 팸투어 코스에 착한로컬푸드 음식점에서 오찬 또는 만찬 실시
 - 착한재래시장 또는 특산물 상점에서 시음회 및 쇼핑기회 제공
- 충청남도과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업무협약 또는 자매결연사업 추진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지 정보제공 사업과 연계 추진
 -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제공하는 각 통신사 어플과 연계사업 추진
 - 충청남도과 한국관광공사간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소요예산 : 50백만원(도비 20, 시·군비 30)

□ 기대효과

- 충남 시·군방문의 달에 대한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인으로 홍보효과 제고
-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업무협약을 통한 다각적인 충남관광마케팅 사업 추진 가능

■ 새로운 내포시대의 대중국 관광객 충남 유치전략 마련

- ◇ 중국은 세계 제4위의 관광송출국으로 한국에 2013년에 200만명의 방문이 예측되고 있음
 - 이중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53.5%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충남으로의 중국관광객 유치가 필요함
- ◇ 충남은 서해안의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고, 대산항의 국제여객터미널조성 등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와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추진방향

-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유치계획으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 대중국의 충남사무소 및 도·시·군 자매결연도시에 충남 관광홍보사업 추진
- 충청남도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용태세 구축

□ 세부 사업내용

- 새로운 내포시대 중국관광객 충남 유치전략 계획 마련
 - 충남도와 충청연이 공동으로 중국관광객 유치전략 사업 추진
 - ※ 2013년 정책과제 연구과제 보고서로 연구용역 수행예정
- 내포권 시·군과 공동으로 대응태세 및 유치방안 모색 사업 전개
 - 서산시 ;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조성하고 연계한 지역수용태세
 - 내포신도시 등 서해안권 시·군 : 관광기반시설 도입 및 관광상품 개발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부문별 수용태세 구축
 - 관광상품 : 한류, 온천, 산업시찰 관광, 수학여행 및 어린이 관광상품 등
 - 숙박시설 : 관광호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비즈니스·체인호텔
 - 음식과 관광쇼핑 : 중국인선호 음식과 쇼핑품목, 중국인 신용카드 이용시스템 등
 - 관광정보 및 안내 : 관광책자, 표지판과 식당메뉴(중국어), 중국어 통역안내원 등

□ 기대효과

-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서해안권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대비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의 관광수입 증대와 고급 관광인력양성에 기여

5.

결론 및 정책제언

①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 마련

- 충남의 관광정책 방향 및 발전방안은 중장기 비전과 단기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연차별 목표에 따라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발굴로 추진해야함
-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2012년에 수립된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2016년까지의 연차별 관광목표와 전략,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각 연도별 충청남도 관광목표와 전략 제시

- 이를 위해서는 2013년부터의 매년 충남 관광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 세부추진사업을 기존사업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
- 2013년의 충남 관광의 목표는 ‘공정관광의 해’로 정하고, 3대목표는 착한여행지와 상품의 발굴 및 육성, 향토 체험관광자원의 특화, 주민주도형 친절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

③ 2013년 전략에 따른 세부시책 추진과 평가 실시

- 2013년의 전략별 세부시책은 기존에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11개의 세부시책과 새로운 사업 10개를 발굴하여 선택적으로 추진
- 이들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연계가 되면서 새롭게 발굴된 세부시책들이 시군 릴레이 방문의 해 사업과 연동이 되도록 사업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함.